



《투사하는 제국 투영하는 식민지》
김려실 지음 | 삼인 | 352쪽 | 값 18,000원
해방기의 혼돈과 6·25전쟁으로 소실됐던 식민지 조선의 영화 필름, 시나리오 당시 신문·잡지의 영화 관련 기사 등 실증적 자료와 기존의 연구 성과를 묶어 재구성한 근대 한국영화사. 항일영화 대 친일 영화, 민족적 진통 대 종속적 모방, 리얼리즘 대 신파 멜로드라마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영화에 비친 일제(日帝) 국가주의의 그늘을 추적한 이 책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타자의 내서널리즘을 비판하다'가 스스로 내서널리즘에 빠지는 일이다.

《야생동물 흔적 도감 - 흔적으로 찾아가는 야생동물 생태 기행》 최태영·최현명 지음 | 돌베개 | 값 25,000원

야생동물의 흔적을 통해 야생동물의 삶과 생활 방식, 습성 등을 설명한다. 또한 발자국의 모양과 발걸음 측정치, 배설물의 형태적인 특징과 크기, 동물 사체, 동물들이 낸 길 등 정보를 풍부하게 담았다. 우리 산과 들에 사는 포유동물 30여 종의 발자국과 배설물, 잠자리, 먹이 흔적, 뽕질 자국 등 야생동물의 삶의 흔적을 600여 컷의 사진과 세밀화를 곁들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번지는 주막》
이주현 지음 | 선 | 528쪽 | 값 25,000원

가요는 우리 문화의 시각지대에서 쓸쓸한 야생초처럼 성장해 온, 민족사와 모든 생사고락을 같이한 우리 문화의 대변인 격이다. 그러나 가요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늘 부족하고 미흡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구동성 지적이다. 이 책은 영남대 국문학과 이동순 교수가 한국 애창가요들의 정서와 의미를 특유의 필체로 풀어냈다. 가요 속에 담긴 굴곡 많은 현대사의 험난한 과정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눈과 피의 나라 러시아 미술》
이주현 지음 | 학고재 | 348쪽 | 값 15,000원

저자 이주현에 대한 관심 보다는 책에 소개된 러시아 미술로 독자들의 시선이 머물기를 기대하게 되는 책이다. 역사, 사회적인 여러 부정적인 요소들을 배제할 때 러시아는 그 어떤 서구 여러 나라들보다 예술사적 의미와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곳이다. 전 세계에 펼쳐진 예술을 순차적으로 소개할 목적으로 '아트 트래블'이라 명명한 시리즈 첫 권으로 그간 소외되어 왔던 러시아 미술을 소개했다.

《풍경과 마음》
김우창 지음 | 생각의나무 | 157쪽 | 값 15,000원

한국의 근·현대사와 근대성을 새롭게 규명하고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의 동양화에 관한 성찰적 에세이다. 동양화와 서양화의 비교로부터 시작하여 근대 이성적 사고의 결실인 원근법의 의미, 풍수사상으로부터 추출해내는 땅에 관한 미학적 접근, 그리고 한국사회를 비롯한 동양사회의 유토 피아에 관한 생각들까지, 동양화로부터 시작한 이야기는 동양사회의 이상향에 대한 고찰들로 깊이 있게 펼쳐지며 결국 오늘날 우리 삶이 안고 있는 동·서양문화로 흔해지고 뒤뜰된 미적 감성에 비판적 각성으로 다가온다.

《미안한 마음》
함민복 지음 | 풀그림 | 184쪽 | 값 9,500원

시인 함민복 씨가 강화도 살이를 글로 펴냈다. 낯설고 힘든 타향살이가 아닌 정겹고 따뜻한 이웃과 자연의 이야기를 담았다. 일기를 펼쳐보는 것처럼 사소하고 푸근한 시인의 일상이 소복 담겨 있다. 각 장마다 곁들여져 있는 예전의 시를 만나는 것도 즐겁다.

《예수, 석가를 만나라:공의 깨달음과 없이 있는 하나님》
이명권 지음 | 코너투스 | 230쪽 | 값 12,000원
영성 수련 공동체인 코리아안쉬람 대표인 신학자 이명권 씨의 종교서에 가까운 철학서. 불교 경전인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반야심경)》을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해석했다. 석가의 '비움'은 '공' 사상에서 드러나고 있고, 예수의 '비움'은 '십자가'의 케노시스(kenosis)에서 드러나고 있다. 석가의 '나눔'은 자비와 보살정신에서 잘 드러나 있고 예수의 '나눔'은 죽음(죽음)으로써 산다는 부활의 정신 속에 드러나 있다.

《울지 마요, 비둘기》
조하혜 지음 | 북인 | 99쪽 | 값 6,000원

첫 시집 발간 후 4년 만에 조하혜 시인의 《울지 마요, 비둘기》가 출간되었다. 북인 출판사의 현대시 세계 시인선의 여섯 번째 시집으로 계간 '현대시세계'의 정신을 잇는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학평론가 장석원 씨의 '사랑밖에 모르는 사랑기계'라는 표현처럼 조하혜의 시는 사랑과 기계라는 대립되는 감각으로 독자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이효석 단편전집 1, 2》
이효석 지음 | 가람기획 | 각권 16,000원 | 574쪽

한국문학의 뿌리를 새롭게 탐색해보려는 의도로 기획된 다시읽는 우리문학 시리즈로 1930년대 한국 문단에서 순수와 서정의 대표적 작가로 불리는 이효석의 단편소설 전작을 모은 작품집이다. 작가 앨범, 해설, 작가 및 작품 연보, 참고 서지 등을 덧붙임으로써 이효석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천양희의 시의 숲을 거닐다》
천양희 지음 | 생터 | 288쪽 | 값 11,000원

동서양을 아울러 세계적인 문명을 펼친 유명 시인들의 치열한 삶과 드라마틱한 사랑, 이별 등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시 세계를 알기 쉽게 해설하고 있는 책이다. 2004년 10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조선일보》에 '문학의 숲'이라는 고정란을 맡아 연재한 에세이도 함께 들어 있다. 릴케, 네루다, 마야코프스키, 랭보, 헤세, 김소월 등 유명 시인들의 시세계와 인간적인 면모를 섬세한 시인의 프리즘으로 조명했다. 시를 어렵게만 생각해보던 독자들에게 시의 묘미를 느낄 수 있게 친절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다.

《울고도 아름다운 당신》
박원서 지음 | 사넛가예심은나무 | 296쪽 | 값 9,700원

오십대 중반에 영세를 받고 가톨릭에 입교한 저자가 그 주일의 복음을 읽고 묵상한 글을 엮은 책이다. 아흔 네 편의 글은 인간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나약함이나 불완전함에서 오는 삶의 편린들이다. 책을 읽으면 신이란 우리 곁에 늘 존재하는 정의이고 바른 것의 상징이며 모든 것이 그러해야 하는 상태로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서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의 일부임을 일깨워준다.

《우리말 편지 1, 2》
성제훈 지음 | 뿌리와이파리 | 264쪽 | 값 9,800원

문학박사가 전하는 우리말 안내서. 저자 스스로 우리말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을 동료들에게 전자 우편으로 보낸 것이 일소문을 타고 수천 명 수신자를 탄생시켰다. 2003년부터 발송한 우리말 편지를 뽑아 내 세계적 순으로 배치해 엮었다.